

# 1968年度의 大學圖書館

朴 熙 永

(韓國外國語大學圖書館 司書長)

## 序 言

우리들의 日常生活에는 여러 種類의 月例, 年例行事가 많다. “도협월보”에서 大學圖書館의 一年을 回顧하는 일도 틀림없는 年例行事의 하나가 되었다. 編輯者로부터 原稿의 請託을 받고 보니 編輯者에게 한가지

附託하고 싶은 생각이 떠 오른다. 이러한 主題의 글이 年例行事의 하나로 되어 있다면 차라리 年初에 請託하여서 一年間 그 館界의 모습을 注視하고 資料를 蒐集할 수 있게하여 주었으면 보다 充實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1967 年과 1968 年의 對比

구 분	년 도	1 9 6 7 年	1 9 6 8 年	增 減
圖 書 館 數		117	125	8
獨 立 建 物 數		52	55	3
座 席 數		32,779	37,932	5,153
職 員 數	專 門	322	316	6
	其 他	641	675	34
	計	963	991	28
藏 書 數		4,382,060	4,693,353	311,293
豫 算 額	資 料 費	113,975,337	120,962,115	6,986,778
	其 他	66,571,019	118,939,342	52,368,323
	計	180,546,356	239,901,457	59,355,101

大學의 圖書館은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하여 大學이라면 必須的으로 圖書館을 施設해야만 함으로 圖書館의 數交에 있어서는 大學의 數와 自然히 同一하여 진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의 數의 增減은 別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個個의 大學圖書館을 볼 때 大學圖書館 相互間에는 學科의 數와 敎職員 및 學生 등 奉仕對象者의 數로서 絶對的인 差異가 생기게 되나 비슷한 條件과 環境의 大學들을 比하여 본다면 大學當局의 圖書館에 대한 理解度와 財政形便에 따라 施設內容에 있어 甚한 優劣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大學의 內容 充實을 위하여 文教部는 大學設置基準令을 公布하였는데 이 基準令에서 圖書館에 關係되는 條項을 보면 大學은 圖書館을 施設해야 하고 學生 1人 當 30 卷以上 그리고 學科當 5,000 卷以上이라고 藏書의

數交만을 基準으로 定하였던 關係로 各 大學은 藏書數가 基準에 達할 수 있도록 藏書의 數만을 補充하는데 血眼이 되었었다. (그렇지 않은 大學圖書館도 있었다) 藏書의 內容은 且置하고 數가 增加하여 갔고 따라서 整理를 해야만 했었다. 司書들은 大學圖書館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圖書가 增加하고 整理가 되어 감에 따라 自然히 書庫와 閱覽室이 必要하게 되어 各 大學은 圖書館을 擴張 또는 新築하게 되어 大學圖書館들은 다른 種別圖書館 보다도 앞서 發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前揭한 對比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 年에 比하여 1968 年에는 모든 면에서 增加를 보이고 있으나 唯獨 專門職 司書의 數만이 減少되고 있음은 大學圖書館의 職制가 少數의 官立大學圖書館만 確立되어 있고 나머지 大多數의 大學圖書館이 確立되지 않은채 基本

的인 運營面에서 混亂을 招來하고 있어서인지 또는 確立되지 않은 職制로 因한 司書의 數的 不足으로 非衛生的인 環境속에서 無理하게 精神的, 肉體的 勞動을 強要 當하고 있어서 다른 館種 圖書館으로 轉職하여 가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 理由를 究明할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는 바이다.

大學圖書館大會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心臟이다」라는 말을 우리들은 서슴치 않고 그리고 흔하게 使用하고 있는데 現在の 우리 處地로서는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心臟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使用하는 便이 오히려 妥當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여러 大學圖書館들이 果然 大學의 心臟部라고 自處할 수 있을 만큼 遜色없이 目的하고 있는 方向으로 運營되고 있는가? 「우리는 大學의 心臟이다」라는 말을 使用하여도 아무런 拘礙를 받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이 어느 地點까지와 있으며 어느 地點에서 있는가? 등등 험들고 벽찬 거름을 暫時 멈추고 스스로 冷靜하게 批判하여 불 必要性을 느끼며 開催된 것이 今年度 大學圖書館大會이었다.

發達한 先進國의 圖書館學이 導入된지도 於焉 10年이란 歲月이 經過하였고 그간 專門教育을 받은 所謂 專門職 司書들이 各 大學圖書館에서 쓰라린 環境과 惡條件下에서도 教育받은 그대로의 훌륭한 圖書館, 外國의 圖書館에 뒤지지 않는 圖書館으로 꾸꾸 꾸며 놓고 最大限으로 奉仕하고자 誠意와 熱意를 다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하는 原因을 究明해야 할 것이며 現在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이 大學의 心臟部라고 하기에는 未及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點이 어떻게 되어서 心臟의 機能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어떠한 條件이 아직도 具備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추려 놓고 어떻게 解決되어야 할 것인가를 共同으로 研究하고 論議하여 目的을 達成하고 發展을 期約해 보겠다고 全國 大學圖書館의 司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지난 5月 23日부터 25日까지 3日間 멀리 濟州大學에서 1968年度 大學圖書館大會가 開催되었었다. 學術講演으로는 濟州大學 金榮敦 教授의 「濟州島海女」와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長인 李丙疇 教授의 釋譜詳節을 中心으로 한 「李朝前期의 國譯本書誌」 그리고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鄭亨愚 司書의 「中宗時代의 書籍蒐集政策」이 各各 發表되었었다. 本 議題로서 大學圖書館들이 當

面하고 있는 여러 問題中에서 몇 問題가 提起되었는데 問題와 發表者는 다음과 같다.

1. 現代圖書館의 問題點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課長 孫 成 祐
2. 現行韓國圖書館教育制度의 問題點  
友石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長 玄 圭 燮
3.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專門職 司書의 役割  
西江大學 圖書館 司書 尹 龜 鎬

이 大會에서 全國大學圖書館의 이름으로 當局에 建議하여 줄 것으로 採擇되었던 要望들은 다음과 같다.

1. 文教部에 圖書館行政 專擔課의 設置要望
2. 大學에 圖書館學講座 設置 要望
3. 司書職 特殊職務手當 支給 要望
4. 大學圖書館 職制確立 要望
5. 司書職 TO 增員 要望

以上이 提起된 切實한 問題들이고 애절한 要望들이었던 것이다. 이 要望들을 좀 더 具體的으로 풀이하여 본다면,

첫째 — 文教部의 行政機構를 볼 때 初級大學과 專門學校까지 合하여 125個大學의 高等教育을 管掌하는 高等教育局이 있음에 比하여 3,600餘個 各種圖書館이 있고, 2,400餘名의 教育을 받은 專門職司書와 司書教師를 合하여 4,800餘名이 各種 圖書館에 勤務하고 있고 1,400萬 名을 奉仕對象者로 하는 圖書館 全般에 關한 行政을 위하여서는 局이란 敢不生心이고 課 아래인 係조차 없음을 文教部 當局이 完全하도록 學校教育에만 置重하고 있음은 如實하게 알려주고 있는 바, 文教部가 圖書館法에 의하여 司書의 資格證을 交付하고 있고 大學圖書館뿐만 아니라 各種圖書館의 施設에 關한 基準까지도 여러 面으로 規定하여 提示하고 있는 以上 圖書行政에 대한 보다 責任있고 보다 積極的인 姿勢를 가져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둘째 — 學問은 日進月步하여 가고 있고 調査와 研究를 위한 高等教育機關인 大學은 學科의 增設, 各種 特殊大學院과 研究所의 新設 등등 年年이 擴張되어 가고 있다. 大學圖書館은 大學人口의 增加와 教育과 研究內容의 高度한 多樣性과 專門化 등에 對處하여 必要한 知的 資料源을 制限된 豫算이나마 最大의 效果를 거두기 위하여 資料를 蒐集하고 이를 體系의으로 組織하여 研究에 뒷받침을 하려고 하더라도 教授法 및 研究方法의 缺陷과 아울러 學生들의 圖書館利用方法의 未熟으로 말미암아 圖書館의 資料들은 死藏되고 圖書

館은 存在意義를 저버리고 方向을 달리하여 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다. 各大學에서 所謂 Orientation이라고 하여 入學 直後 몇 時間 圖書館을 紹介하고 있으나(그나마도 施行하지 않는 大學이 있지만) 몇 時間의 紹介로서는 아무런 效果도 없는 時間 浪費에 지나지 않는 일 이므로 最少 1學點의 教養科目으로 “圖書館學”이란 講座가 있어야만 學生들로 하여금 圖書館의 生命을 되찾을 수 있는 知識과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學生에 대한 圖書館學講座 設置와 並行하여 強力히 施行되어야 할 것은 指定圖書制度이다. 指定圖書制度는 教授들의 教授法과도 不可分의 關係가 있지만 指定圖書制度의 施行으로 圖書館의 藏書는 恒常 움직여 지고 心臟으로서 鼓動할 것이다.

셋째——大學圖書館의 司書는 高度로 專門化한 資料들을 蒐集하여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으로 이를 體系의으로 組織하여서 學士, 碩士, 博士學位 過程을 爲한 研究를 도우며 教授들에게 새로운 學의 情報를 提供하는 一種의 學問供給者의인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特殊한 專門職으로서 大學에 服務하고 있는 教職員中에서는 教授와 더불어 圖書館의 司書만이 文教部에서 그 資格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業務內容을 볼 때 衛生環境이 좋지 않은 書庫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진 圖書를 다루어야 하며 실 사이 없이 閱覽者들을 接해야 하고 또 人類가 남기는 모든 知識을 體系化해야 하며 參考業務 등에 있어서는 研究를 도와 方法과 方向과 資料를 提示해야 하는 精神의이고 肉體의인 勞動에 從事하고 있는 바 司書職에 대한 特殊職 手當은 當然히 支給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넷째——圖書館法이 公布된지도 이미 5年이 지났고 大學教育은 急進的으로 發展하여 各 分野는 高度로 專門化되어 감에 따라 大學圖書館의 藏書는 增加하여 가며 이들 資料는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이 없이는 整理하고 奉仕하기가 甚히 어려워져 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專門職司書의 數가 昨年에 比하여 減少되었다는 事實은 實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司書職의 數的인 不足이 過重한 業務量에 比하여 反比하는 處遇에 크게 原因되고 있기는 하지만 大學圖書館이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할 때 個個의 大學發展에도 크게 影響을 미친은 勿論 나아가서는 國家 發展에도 影響되는 바 크므로 이 問題는 大學圖書館의 職制가 確立되어야 하고 司書職의 TO가 增員됨으로써 만이 解決될 수 있는 것이다.

#### 國立大學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

同一한 環境과 同一한 條件에 있는 國立大學圖書館

의 館長과 司書長이 會同하여 共同問題를 協議하는 會議體가 있어 回를 거듭하는 사이에 많은 成果를 거두어 今年에는 第9회를 맞이하여 大邱에서 10月 19日~20日 兩日間 慶北大學校 中央圖書館의 主催로 開催되었다. 今年度 會議에서는 6個 國立大學의 國史關係 綜合目錄編纂 6個 國立大學의 外國定刊書 綜合目錄編纂을 決議하여 이미 外國定刊書 綜合目錄의 編纂을 끝내어 發刊한 바 있다. 한편 司書職의 待遇問題를 協議한 結果 各 大學校 總長에게 司書職의 手當을 支給하여 줄 것을 建議하였고 한편 司書職의 採用試驗은 文教部長官에게 移管토록 하는 建議案을 議決하였던 것이다. 이번 會議에서 議決된 國史關係 綜合目錄의 編纂事業은 國內外에서 所謂 韓國學의 研究熱이 高潮되고 있는 此際에 時機의으로 適切한 事業으로서 學界에 대한 貢獻이 多大한 事業이라 하겠다. 學問의 分野別 書誌事業이 活潑해져야 하고 이러한 書誌事業이 이루어져야만 資料의 相互貸借도 可能하여 저서 圖書館奉仕가 本格化할 수 있을 것이다.

#### 醫學圖書館協議會

學問이 專門化되어 감에 따라 近來에 이르러서 圖書館의 趨勢는 主題別圖書館의 發展을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6月 18日 各 醫科大學圖書館과 病院圖書館 등 醫學을 다루는 圖書館 21 個館이 모이고 醫學大學圖書館이 主動이 되어 共同的인 利益이 되는 事業을 展開하고 共同的인 發展을 위하여 醫學圖書館協議會를 結成하였음은 다른 主題別圖書館들에게 크게 刺戟을 주는 일로서 慶賀하여 마지 않는다. 結成된 이 協議會는 앞으로 醫學을 主로 하는 圖書館 相互間에 資料와 情報의 交換, 資料의 共同購入, 複寫奉仕 등등 圖書館 運營面에서 研究되고 實施해야 할 許多한 問題들이 많을 것이나, 그 보다는 先行되어야 할 問題는 醫學圖書館 司書로서의 資質向上이 더욱 切實한 問題가 될 것이다. 이 問題는 비단 醫學圖書館에 極限된 問題가 아니고 모든 主題別 奉仕를 主로 하는 圖書館 司書全體의 問題이기도 하지만 醫學圖書館의 專門職 司書는 圖書館專門家로서는 勿論이러니와 醫學에 있어서 教育者로서 그리고 學者로서의 學識과 教養 등의 資質을 兼備해야만 하겠다.

#### 圖書館藏書相互貸借

圖書館에서의 資料整理業務의 窮極的인 目的은 閱覽者에게 迅速하고 正確하게 要求하는 資料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手段인 것이다. 그러나 要求하는 資料가 그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지 않을 때 利用者에게 주는

失望은 大端히 클 것인 바 圖書館事業이 奉仕事業이라고 한다면 他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資料를 圖書館相互間에 貸借하여 利用者에게 提供하게 되는 때 圖書館에 대한 利用者の 信望과 信賴는 豫想 以上으로 큰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完全한 奉仕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67 年부터 一部 圖書館間에서 論議되다가 國立中央圖書館의 積極인 努力으로 아래와 같은 圖書館들이 圖書館藏書相互貸借의 契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保留中)

國立中央圖書館

國防大學院

國會圖書館

南山市立圖書館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서울大中學校 附屬圖書館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保留中)

梨花女子大學校 中央圖書館

鍾路市立圖書館

韓國研究院

現在도 一部 圖書館間에는 相互貸借가 活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에서도 施行되고는 있지만 相互貸借로서 奉仕를 積極化하려면 綜合目録이 이루어져야 하고 綜合目録을 編纂하려면 資料의 完全整理가 先行되어야만 萬全을 期할 수 있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 事實이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을 爲始하여 몇몇 圖書館에서는 이미 藏書目録이 刊行되었다. 各圖書館이 個個圖書館의 藏書目録을 刊行해야하고 나아가서 綜合目録이 刊行되어야만 汎全國的인 藏書相互貸借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 바 이러한 事實이 早速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結 言

圖書館事業을 育成하는 事業이라고 한다. 1968 年의 大學圖書館은 이미 씨가 뿌려 졌고 肥料도 若干 주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太陽의 빛이 必要하게 되었고 때때로 肥料가 주어 지면 잘 자랄 수 있는 處地에 있게 되었다. 알뜰하게 가꾸어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져서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것이다.

### (5 面에서 계속)

단지 정례적인 건의문에 포함하거나 각종 도서관대회에서 떠들어 대는 따위로서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8년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이 가하여 졌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즉 공공도서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암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모든 힘을 기울여서 대우개선 문제에 노력하였다. 문교부의 이해와 경제기획원의 협력에 따라 예산책정속에 포함되었으나 정부에 의한 건축예산편성방침에 따라 부득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그후 다시 국회로 예산안이 회부된 이후 문공위원회에서의 토의에서 사서직원의 대우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예산안에도 없던 것이 다시 삽입되어 소생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으나 마지막 계수 조정에서 전기한 바와 같은 정부의 건축정책에 따라 최후 순간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68년에는 위에서 간단히 기술한 바와 같이 거의 성취단계까지 밀고 갔던 것이나 오는 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꼭 성취함으로써 年來의 공공도서관계의 숙원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해결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관계 각 기관과 이에 관련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총력이 합쳐져야 할 것이므로 도서관인들은 이의 성취를 위하여 더 한층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 7. 結 言

1968년도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계의 움직임 가운데서 중요한 것만을 추려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끝으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들의 숙원이 1968년도에 달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으로서 굴복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성취할 날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숙원중의 하나이던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이 1968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실천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